

과학벨트 유치 호남-충청의원 충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부 갈등 표출 노골화

김영진 “여건 갖췄는데 ‘정치 잣대’에 배제되다니”

박병석 “대통령 공약 사항… 민주당도 당론 결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충청권 의원들이 정면충돌했다.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불 밑에서 계속됐던 양측의 갈등이 지난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은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김 의원은 이날 공개 발언을 신청, 이날 의제에 없었던 과학벨트 입지 문제를 거론하며 “어느 특정 지역을 지목해 당이 서포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이럴 경우)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의원들은 의제에 없는 발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대전 출신의 박병석 의원은 “과학벨트 문제는 비공개로 논의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나는 이미 발언권을 얻어서 나왔다.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일축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충북의 변재일 의원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박차고 회

의를 떠났다. 이 같은 소란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작심한듯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초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주겠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 지역(호남)이 R&D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이를 우리 스스로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호남이) 입지 여건을 갖췄는데도 정치적인 기준의 잣대, 정치싸움화에 의해 배제한다면 얼마나 한스럽겠느냐”며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당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5개 지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과학벨트 입지가) 포항으로 결정되면 민주당은 4개 지역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수 있다”며 광주·전남-충청-대구·경북권으로 이어지는 삼각벨트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 지도부의 만류에도 발언권을 신청, “과학벨트 문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한나라당

지도부도 지난해 7·28 재보선 당시 충청권 유치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 장관 명의의 자료에서 최적 입지가 세종시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으며, 우리 당도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비생산적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지연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좀 더 논의해 야겠지만 공개적으로 공론화해 내부 갈등이 심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작심 발언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발언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전남지역의 김효석 의원

도 “R&D 및 과학벨트는 기능별로 특화, 분산배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오는 8일 광주·전남, 대전·충청, 대구·경북권의 삼각벨트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조만간 과학벨트 유치 특별법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민주당 내부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민주당은 무상복지 재원을 놓고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 사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희뉴스

“2014년 이후에도 KTX 광주역 운영을” 민주당 복각 대책위

민주당 광주 복각지역위원회(위원장 강기정 의원)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대책위(위원장 진선기 광주시의원 등 3명)는 지난 31일 “2009년말 기준으로 광주역과 송정역 이용승객 비율이 6대4로 광주역이 많다”며 “시민들의 철도접근성과 구도 심권 활성화를 위해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는 2014년 이후에도 광주역에 KTX가 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적으로 인해 호남고속철도 광주~익산 구간이 완공되는 2014년 이후에 KTX의 광주역 운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孫 “증세 없다” 鄭 “제2 MB 정부냐”

민주, 무상복지 재원 싸고 노선투쟁 본격화

무상복지 재원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 노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증세를 배제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민주당 방침으로 공식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를 당원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대응하며 노선 투쟁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중요 정책은 궁극적으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며 부유세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그는 또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

얘기하는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국가 노선의 제2의 MB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손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정 최고위원의 당원투표 요구는 당원 사이에서는 부유세 찬성여론이 높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사이에서 부유세에 대한 동조 여론이 높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돌파구로 해석된다. 나아가 부유세를 통해 진보진영 내에서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놓고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옳은데, 그 과정에서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주장도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이같이 당내 분위기 때문에 손 대표의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요구에 직접 대응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내 동력이 낮은데 편히 대응해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부유세 논란이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깔렸다. 집권을 위해서는 진보뿐 아니라 중도·개혁 세력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정 최고위원 식으로 하면 집권하기 어렵다”며 “최고위원과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두고 굳이 당원 투표를 하지는 것도 역지”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김해 을 “문재인 나왔으면…” 한나라 “김태호, 노봉 잠재울 카드”

■ 여야, 4월 재보선 ‘거물’ 영입할까

여야가 4·27 재보선을 앞두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거물 후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김해 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의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 을 재보선의 의미는 다른 곳과 다르다”며 “문 변호사처럼 상징성 있는 분이 직접 나서 노무현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사무총장도 지난 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실장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인간적으로도 대단히 매력적인 분”이라며 “얼마나 완강하지 않지만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문 전 실장 카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김해 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데다 거물급이 나와야 야권연대가 보다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하지만 문 전 실장은 김해 을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을 알려지고 있어 민주당의 예를 태우고 있다. 한나라당도 김해 을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지목하고 있다. 김해 을 보궐선거에서 노봉(盧鳳)을 잠재울만한 빅 카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또한, 분당 을 보궐선거를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의 전략공천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현재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 전 총리의 장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전 총리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다 당 지도부와는 구체적인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B 취임 3주년 개각설 ‘술술’

조만간 靑 참모진 개편 일부 장관 이달말 교체

이명박 대통령이 2월 말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일부 장관 이달말 교체

이명박 대통령이 2월 말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일부 장관 이달말 교체

이명박 대통령이 2월 말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일부 장관 이달말 교체

이명박 대통령이 2월 말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일부 장관 이달말 교체

대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임명된 지 오래된 다른 정책 분야의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을 교체한 이후 내달 25일 취임 3주년을 앞두고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체가 거론되는 수석급은 잇따른 인사 파동으로 책임론이 일었던 권재진 민정수석과 진영근 고용복지수석, 진동섭 교육문화수석 등이다.

개각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후보자의 낙마로 공식으로 남아 있는 감사원장과 최근 구제역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두 자리가 우선 대상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같이 한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 부장관, 재임 2년이 넘었거나 가까이 된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여성부장관 등 이른바 ‘장수장관’도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 구분 | 전남대학교(6기) |
|------------|---|
| 개강일시 | · 월요일 주간반: 2011. 2. 28(월) 09:00 · 아간반: 2011. 2. 28(월) 18:00 |
| 모집기간 | 2011. 1. 17(월)~3. 04(금) |
| 수업기간 | 2011. 2. 28(월)~2011. 6. 16(목) (15주 90시간) |
| 모집인원 | · 기초반: 주·아간반 각 30명 · 심화반: 주·아간반 기준정원생과 편입생 |
| 수업시간 | · 매주 (월요일/목요일) 주간반 09:00~12:30 아간반 18:00~21:30 |
| 수강료 | ₩360,000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 전남대평생교육원) |
| 수료후 특전 |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 문의: 062)530-3873~5 · 지도교수: 010-2611-117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제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자도 모른다” 먼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름 붙여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 대학교별 | 교육과정 | 기간 및 요일 | 강의시간 | 수강료 | 기연전화 |
|-------|--------|---------|--------|----------|------------|
| 조선대학교 | 관상 초급 | 3월 8일부터 | 19-22시 | 150,000원 | 230-7700-2 |
| 평생교육원 | 관상 고급 | 3월 4일부터 | 19-22시 | 150,000원 | |
| 동강대학교 | 사주명리초급 | 3월 2일부터 | 19-21시 | 100,000원 | 520-2516 |
| 평생교육원 | 사주명리고급 | 3월 3일부터 | 19-21시 | 100,000원 | |

● 조선대 등록-2월1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2월1일부터 - 전화 등록 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속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명, 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언어(최복수)외 2명
영어(신경찬)외 2명
수학(주석진)외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 구분 | 광주여자대학교(12기) | 광주교육대학교(제3기) |
|------------|--|--|
| 개강일시 | · 금요일 오전반: 2011. 3. 4(금) 09:10 · 오후반: 2011. 3. 4(금)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5(토) 09:10 | · 목요일 오전반: 2011. 3. 10(목) 09:10 · 목요일 오후반: 2011. 3. 10(목) 14:10 · 토요일 오전반: 2011. 3. 12(토) 09:10 · 토요일 오후반: 2011. 3. 12(토) 14:10 |
| 모집기간 | 2011. 1. 18(화)~3. 5(토) | 2011. 1. 18(화)~3. 12(토) |
| 수업기간 | 2011. 3. 4(금)~2011.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 2011. 3. 10(목)~2011. 8.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
| 모집인원 | · 기초반: 금·토요일 각 25명 | · 기초반: 목·토요일 각 25명 |
| 수업시간 |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00~13:00 오후반: 14:10~18:00 |
| 수강료 | ₩340,000 · 광주은행: 148-107-307803(예금주: 광주여대) | ₩340,000 · 우체국: 503557-01-005018(예금주: 광주교대) |
| 수료후 특전 |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자격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이사장자격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